

TOURISM SCOPE

2018. Vol. **42**
ISSN 1739-5089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Malaysia, Kota Kinabalu

THE SOUND OF BLOOMING

TAICHUNG WORLD FLORA EXPOSITION

2018
11,03
—
2019
04,24

Houli | Fengyuan | Waipu



2018
TAICHUNG WORLD
FLORA EXPOSITION

Contents



02 Special Theme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06 City Inside
선비 문화 따라가는, 안동·영주 투어



10 Focus On
빛고을 광주의 뜨거운 변화

14 Concept Travel
푸근한 현지 인심
세계의 전통시장 6



18 TPO People
TPO 사무총장, 김수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TPO의 새로운 발걸음

20 TPO News
TPO 뉴스

22 Zoom in Festival
TPO 도시 회원 축제 캘린더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관광 분야 국제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PO에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86개 도시 정부와 45개 민간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 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세계인이 사랑하는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 여행을 떠난다면 단연 코타키나발루가 제격이다. 금방이라도 요정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국적인 자연 풍경과 수만 가지의 붉은색으로 물드는 하늘과 바다는 여행 내내 천국에 와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할 것. 시내로 나서면 활력이 넘치는 현지인들의 일상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에디터 고아라 사진 이효선(프리랜서)



코타키나발루 여행 정보

원치 말레이시아, 사바 주의 도시. 보르네오섬 북부에 있는 키나발루산(4,101m) 기슭에 위치한다. 면적 351km² 인구 452,058명 기후 1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다. 평균 기온은 영상 30°C지만, 키나발루산과 쿤다상(Kundasang) 지역은 기온이 서늘한 편이다.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지만, 10~2월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편이다. **개요** 옛 이름은 제셀튼(Jesselton). 19세기 후반, 북보르네오가 영국령(領)이 되면서 1899년부터 새로 건설된 항구도시로 목재·고무 등을 적출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오스트레일리아군과 일본군의 격전지가 되어 폐허가 되었다가 재건됐다. 사바 주의 정치·상공업의 중심지로 경제적으로는 홍콩과 유대가 깊다.



섬 투어의 출발지 제셀튼 포인트 Jesselton Point

‘제셀튼’은 19세기 말 영국군이 보르네오 섬에 최초로 상륙했을 당시 코타키나발루를 부르던 명칭. 이 선착장이 코타키나발루의 페리 터미널로 사용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입구를 지나면 양옆에 먹거리와 택시 부스가 늘어선 광장이 등장한다. 물놀이를 위한 용품부터 말레이시아 기념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어 여유가 있다면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다. 항구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식당가를 지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선착장이 나타난다. 코타키나발루 앞 바다에 자리한 마무틱 섬과 마누칸 섬, 사피 섬, 가야 섬으로 가는 배를 운항하는 곳. 티켓은 입구에 자리한 매표소 건물에서 구매하면 된다.

주소 Sabah, Kota Kinabalu, 88200 Kota Kinabalu, Sabah 전화 +60-88-235-787 운영시간 06:00~18:00 홈페이지 www.jesseltonpoint.com.my



옛 말레이시아 모습 그대로 사바 박물관 Sabah Museum

아름다운 휴양지로 거듭나기 이전의 코타키나발루가 궁금하다면 사바 박물관에 가면 된다. 1985년 영국 식민지 시절, 북보르네오 지역의 총독 관저가 있던 자리에 문을 연 주립 박물관. 오랫동안 사바 주의 수도 역할을 해온 도시답게 시내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넓은 부지 안에 여러 개의 전시관이 나뉘어져 있어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야 한다. 말레이시아 전통가옥을 본떠 디자인한 독특한 외관이 특징. 내부로 들어서면 옛 코타키나발루 거주자들이 사용하던 도자기와 직물, 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비롯해 사바 역사가 총망라된 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 건물을 빠져나와 뒤편으로 돌아 나가면 클래식한 올드 카와 북보르네오 열차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이 나타난다.

주소 Jalan Muzium, 88300 Kota Kinabalu, Sabah 전화 +60-88-225-033 운영시간 09:00~17:00 입장료 15링깃 홈페이지 www.museum.sabah.gov.my

코타키나발루 시내를 한눈에 시그널 힐 전망대 Signal Hill

가야 스트리트 뒤편, 정글로 우거진 언덕 위에 자리한 도시 전망대. 코타키나발루 시내를 물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케이블카나 레스토랑은 없지만 입장료가 따로 들지 않아 한 번쯤 둘러보기 좋은 곳. 시내와 바다를 조망하며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매점도 자리하고 있다. 다만 시내에 외관이 멋진 건물이나 마을은 없으니 근사한 풍경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석양이 질 무렵에 찾아가면 붉은 노을이 시내와 바다를 동시에 물들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전망대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셀튼 호텔 뒤편에 있는 계단 트레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주소 93, Jalan Bukit Bendera Lower, 88400 Kota Kinabalu, Sabah 전화 +60-13-858-6018 운영시간 08:00~24:00 입장료 무료



꼭 가봐야 할 코타키나발루 명소

현지 보양식 ‘바쿠테’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제셀튼 포인트부터 사바 박물관까지 역사 깊은 명소를 둘러보자. 다리가 아플 때쯤 리조트로 돌아와 하늘 가득 번지는 오색찬란한 노을을 바라보며 잠잠해진 바닷소리에 귀 기울이면 왜 이곳이 세계인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인지 깨닫게 된다.



산토리니를 닮은 사원 시티 모스크 Masjid Bandaraya

호수 위에 지어져 더욱 신비로워 보이는 사원. 덕분에 ‘물 위의 모스크(Floating Mosque)’라는 별명도 얻었다. 새하얀 건물에 금강으로 새긴 독특한 무늬와 푸른색 돔이 더해져 그리스 산토리니가 떠오르기도 한다. 한 번에 1만 2000명이 동시에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 아름답고 웅장한 외관 덕에 여행자가 가장 선호하는 포토스팟으로도 손꼽힌다. 신성한 곳이니만큼 아무 때나 둘러볼 수 없다.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는 예배 시간을 피해 입장이 가능한 시간을 미리 알아두자. 사원 내부에 들어가려면 차림도 갖춰야 한다. 사원입구에서는 5링깃을 지불하면 이슬람 전통 복장을 대여해준다.

주소 Jalan Teluk Likas, Kampung Likas, 88400 Kota Kinabalu, Sabah 전화 +60-88-435-891 운영시간 토-목요일 09:00~11:45, 13:30~15:00, 16:15~17:45 입장료 무료, 의상 대여료 5링깃



코타키나발루 3대 석양 명소

코타키나발루는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 남태평양의 피지와 함께 세계 3대 석양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은은하고 열게 물드는 나머지 2곳과 달리 구름까지 붉게 물들이는 강렬한 석양이 특징. 감동이 2배가 되는 최고의 선셋 포인트 3곳을 꼽았다.

상그릴라 탄중 아루 리조트

선셋 바, Sunset Bar

상그릴라 탄중 아루에 묵는다면 굳이 멀리서 선셋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없다. 해가 떨어지는 바닷가로 뻗어있는 선셋 바에서 최고의 석양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해 오로지 석양에 물든 바다와 하늘만 눈에 담을 수 있다. 상그릴라 탄중 아루에 묵지 않더라도 선셋 바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



식사과 함께 즐기는 석양 워터프론트 Waterfront

여행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선셋 포인트다. 시내 중심에 위치해 찾아가기 쉽고 석양이 떨어지는 바다 쪽 목조 데크를 따라 레스토랑과 펍이 늘어서 있기 때문. 식당가 대부분이 해질 무렵 해피 아워를 진행해 저렴한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환상적인 선셋 뷰가 끝나고 나서도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주변에 야시장을 비롯해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카페와 맛집이 모여 있어 2차를 즐기기도 좋다.



정글 속에서 감상하는 석양 반딧불이 투어 Fireflies Tour

코타키나발루에 왔다면 반딧불 투어는 필수. 보통 해가 지기 직전에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자연 속에서 석양을 만끽할 수 있다. 정글의 석양을 보기 위해 일부러 반딧불 투어를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 노을이 붉게 흘러내리는 강물 위에 떠있는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해산물 총집합 웻 마켓 Wet Market

뒤편으로 바다가 펼쳐져 더욱 신뢰가 가는 수산물 시장. 어선에서 갓 건진 싱싱한 해산물이 매대 가득 진열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이 서식한다는 '코랄 트라이앵글'의 바다답게 독특한 열대 생선도 볼 수 있다. 현지인들에게는 신선하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관광객들에게는 재밌는 볼거리를 선사하는 곳. 가장 인기가 많은 해산물은 말레이시아어로 '소통(Sotong)'이라 불리는 오징어.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징어튀김이나 오징어 양념 볶음의 그 오징어다.

주소 Pusat Bandar Kota Kinabalu, 88000 Kota Kinabalu, Sabah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곳

센트럴 마켓 Central Market

현지인들을 위한 도매 중심의 생필품 시장. 신선한 야채와 깔라만시, 두리안, 망고 등의 열대과일, 닭고기와 달걀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코타키나발루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대부분 캐리어에 싸갈 수 없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대량 구매는 어렵지만 현지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따금씩 맛보기로 내어주는 과일을 맛보는 것도 또 다른 즐길 거리.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즐겨먹는 견과류와 전통과자도 함께 판매한다.

주소 Jalan Tun Fuad Stephens, Kota Kinabalu, 88000 Kota Kinabalu, Sabah



활기 넘치는 야시장 필리핀 마켓 Filipino Market

동남아의 야시장은 필수 여행 코스. 그중에서도 코타키나발루의 필리핀 마켓 야시장은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행자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규모가 큰 것은 물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먹거리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 웻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산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비롯해 뷔페처럼 진열한 현지 음식, 열대 과일을 즉석에서 갈아 만든 주스 등을 맛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건 숯불에 구워내는 사테와 닭 날개. 인기가 많아 계속 굶기 때문에 시장에 연기가 그윽한데, 이 또한 필리핀 마켓 야시장만의 매력이다. 현지인도 많이 찾아 메뉴판의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어로 되어 있는데, 음식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니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는 것이 편하다.

주소 Jalan Tun Fuad Stephen, Pusat Bandar Kota Kinabalu, 88000 Kota Kinabalu, Sabah

코타키나발루 현지 시장

현지인들의 삶이 가장 가까워서 느끼려면 시장에 가야 한다. 워터프론트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에 모여 있는 시장은 코타키나발루 명소 중의 명소. 바닷가에 자리해 싱싱한 해산물이 진열된 수산시장부터 말레이시아 전통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명물 시장, 낮보다 더 뜨거운 열기의 야시장까지, 현지 소울이 넘치는 시장 4곳을 소개한다.



한땀한땀 정성 가득한

핸디 크래프트 마켓 Pasar Kraftangan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핸드 크래프트 마켓이 제격. 현지인이 직접 만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곳의 대표 기념품인 목각 장식품과 오랑우탄 인형을 비롯해 코타키나발루의 철자가 또박또박 적힌 티셔츠, 선물하기 좋은 손글씨 열쇠고리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한국인에게 특히 인기가 좋은 제품은 이 지역의 특산물인 해수 진주로 만든 액세서리. 퀄리티가 좋지만 핸드메이드 특유의 정겨운 느낌이 묻어 있다. 진주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 시장 앞쪽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갖다 놓은 야외 수선점이 눈길을 끈다.

주소 Jalan Sinsuran, Pusat Bandar Kota Kinabalu, 88000 Kota Kinabalu, Sabah

선비 문화 따라가는 안동·영주 투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의 고장, 경북 안동과 영주. 유교 문화를 근간으로 서원과 향교, 한옥마을이 잘 보존된 지역을 찬찬히 돌아보았다.

에디터 최종인 사진 이근수(프리랜서)

성리학의 본고장 안동

유림의 고장으로 알려진 안동은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 선생,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서예 류성룡 등 걸출한 인물을 여럿 배출한 곳이다.



안동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경상북도 북부 중심 면적 1,521km² 인구 169,221(2015년) 기후 한서의 차가 심한 남부내륙형 기후. 평균기온은 11.8℃, 8월 평균기온은 25.0℃, 1월 평균기온은 -2.3℃이고, 강수량은 연평균 1,049.9mm이다. 개요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을 합쳐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됐다. 서원·사찰·고적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대표적인 전통문화관광지의 거점이자 유교문화의 요람이다. 남서는 비교적 평탄하나 북동은 산이 험준하여 농경지는 거의가 산간에 위치하며, 풍산평야를 제외하고는 평야가 극히 적은 편. 해마다 10월에는 안동민속문화제가 열린다.



차경이 아름다운 서원 병산서원

도산서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연환경이나 건축미가 그에 못지않은 서원이다. 병산서원에서는 낙동강과 병산을 마주볼 수 있는 만대루가 가장 인상적. 만대루는 두보의 시인의 '백제성루(白帝城樓)에서 '취병의만대(翠屏宜晚對)' 시구를 따온 것으로 '푸른 산을 늦도록 마주 대한다'는 뜻이다. 서원 안에서 만대루를 바라보면 바깥세상과 서원을 구분하면서도 완전히 가로막지 않은 독특한 건축양식이 펼쳐내는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7개 기둥 사이로 보이는 낙동강과 병산의 자연이 병풍에 그려진 수묵화처럼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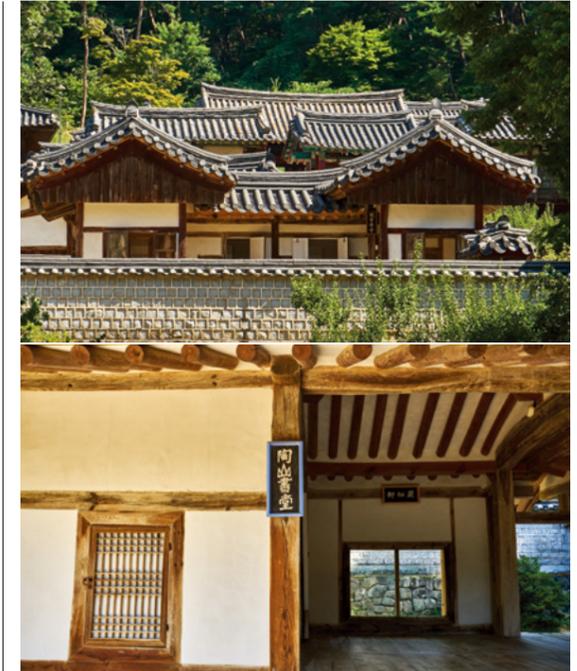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물이 돌아 감싸 안은 마을 하회마을

낙동강 지류가 돌아간다는 뜻을 가진 물돌이마을.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려운 탓에 임진왜란 당시 피해가 거의 없었다. 덕분에 조선 양반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건축물과 풍속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 봄이면 배꽃이 한가득 피어 이화촌이라고도 불렸다. 대표적인 고택은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 '충효당'과 대가집의 격식을 갖춘 '북촌택' 등이 있다.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전화 054-853-0109 운영시간 여름 09:00~18:00 겨울 09:00~17:00 입장료 성인 5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도산서원

안동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서원. 안동으로 낙향한 이황 선생이 1561년 도산서당과 기숙사인 농운정사를 짓고 제자를 가르쳤다. 도산서당은 3칸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로 온돌방을 '완락재', 마루칸을 '암서헌'이라 이름 지었다. 선조는 친히 한석봉의 친필을 새긴 도산서원의 현판을 사액, 전교당에 걸었다. 언덕에 위치한 도산서원은 자연스레 층층이 경사가진 형태로 이뤄졌으며 소박한 건물마다 담을 이뤄 이기자기한 미로 속을 걷는 기분이 든다.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전화 054-856-1073 운영시간 여름 09:00~18:00 겨울 09:00~17:00 입장료 성인 15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600원



안동 주민의 핫플레이스 월영교

바닥과 난간을 목재로 만든 인도교. 길이가 387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나무다리다. 댐 건설로 수몰된 월영대가 강 건너 산중턱으로 이전되어 월영교라 이름 지었다. 밤이면 물위에 비친 달빛과 다리의 조명이 어우러져 이름과 잘 어울리는 풍경이 펼쳐진다. 다리 한가운데에는 월영정이 있어 안동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안동담에서 흐르는 물이 깊고 차가워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 특징이다.

주소 경북 안동시 상이동 569

선비 문화의 중심지 영주

1914년 영주와 풍기, 순흥 세 고을을 합해 영주시가 됐다.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 선비를 주제로 한 선비촌 등 진정한 선비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영주 여행 정보

원천 대한민국 경상북도 북부 끝에 위치 면적 669km² 인구 108,000(2018년) 기후 한서의 기온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 봄과 가을이 짧으며 1월 평균기온은 -3.2℃ 안팎이며 8월의 평균기온은 24.2℃를 나타낸다. 개요 영주시의 북쪽에서 서쪽 경계선을 따라 뻗은 소백산맥과 여기서 갈라진 지맥들이 동남쪽으로 이어지며 분지를 이룬다. 영주동을 중심으로 중앙선·경북선·영동선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 예로부터 한국 '십승지'의 첫째로 꼽히는 풍기읍을 중심으로 명승지와 사적지가 산재한다.



신비로운 1400년 고찰 부석사

신라 문무왕 시절 의상대사가 지은 유서 깊은 사찰. 영주 여행의 필수 코스라 할 수 있는 부석사는 화엄종찰의 가장 큰 절로 유명하다. 안양루를 지나면 부석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무량수전이 나타난다.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 목조건축물로 배흘림기둥과 처마의 유려한 곡선이 유독 아름답다. 무량수전에서 조사당으로 가는 길에 뒤돌아 경내를 바라보면 검은 기와지붕과 대비되는 맑은 하늘과 푸른 소백산맥이 절경을 이룬다.

주소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전화 054-633-3258 입장료 성인 12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800원



외나무다리 건너 마을 무섬마을

멀리서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해 '무섬마을'로 불린다. 내성천과 서천이 마을을 태극 모양으로 한 바퀴 휘감아 돌고 있다. 무섬마을은 마을과 육지를 잇는 외나무다리가 특징. 외나무다리를 따라 '가마 타고 와서 상여 타고 나간다'는 말처럼 접근이 쉽지 않다. 무섬마을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려면 고택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물안개가 자욱한 내성천을 따라 백사장과 외나무다리를 산책해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고택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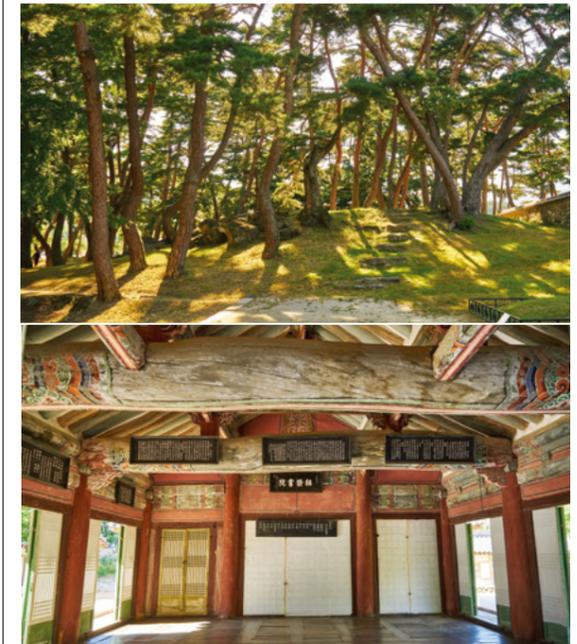
주소 경북 영주시 문서면 수도리 전화 054-634-0040



삼판서의 정신이 깃든 삼판서 고택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3명의 판서가 연이어 살았던 저택. 고려 공민왕 때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이 첫 주인이다. 정운경은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 삼봉 정도전의 아버지. 뒤이어 정운경의 사위 황유정 판서가 이곳에 살았다. 황 판서 역시 사위 김소량에게 집을 물려줘 대대로 사위가 이어받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삼판서 고택은 26채의 대저택이었지만 1961년 대홍수로 철거된 후 2008년 인근 언덕 위에 안채와 바깥채 일부만 복원됐다.

주소 경북 영주시 선비로181번길 56-1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무너져가는 교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 지은 서원이다. 소수서원으로 향하는 길에는 적송 수백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선비가 되라는 의미에서 '학자 수림'이라 불렀다. 강학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에 걸쳐마가 인상적인 팔작 지붕의 건물. 장대석으로 기단을 높게 쌓고 그 위에 자연석을 다듬은 주춧돌을 놓은 뒤 배흘림기둥을 세웠다. 사방에 너비 1m 정도의 빗마루를 둘러 문을 열면 넓고 쾌적한 마루가 눈을 시원하게 한다.

주소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전화 054-639-7691 운영시간 봄·가을(3-5월, 9-10월) 09:00-18:00, 여름(6-8월) 09:00-19:00, 겨울(11-2월) 09:00-17:00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빛고을 광주의 뜨거운 변화

무등산국립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은 광주 여행에 불을 지폈다. 광주송정역 앞 1913송정역시장은 한층 젊어진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 재래시장에 동지를 튼 젊은 상인들은 사투리로 기발한 아트 상품을 만들고 전통 음식을 세련되게 브랜딩했다. 호남의 선비 정신이 깃든 월봉서원에서 유유자적 풍류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오충근 취재협조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시 여행 정보

위치 대한민국 전라남도 중북부에 위치, 동쪽으로는 담양군, 서쪽으로는 함평군, 남쪽으로는 나주시와 화순군, 북쪽으로는 장성군과 접하고 있다. **면적** 501.19km² **인구** 1,472,199(2015년) **기후** 비교적 온화한 기후, 연평균 기온은 13.5°C이며, 1월 평균 기온은 0.5°C, 8월 평균 기온은 26.1°C다. 강수량은 연평균 1,367.8mm로, 3~5월에 20%, 6~9월에 64%의 비가 내린다. **개요** 동쪽 산간과 서쪽 평야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광주는 행정구역으로는 5개구, 95개 행정동이 있다. 예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로 불리며 남도 문화를 이끌어왔다.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은 빼어난 맛과 넉넉한 인심을 보여준다.

광주를 빛내는 랜드마크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광주시와 담양군, 화순군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넓이 1051.36km²의 무등산. 최고봉인 천왕봉의 높이가 무려 1187m에 달한다. 무등산을 깎아 지른 듯이 도시가 형성된 덕에 시내 어디서든 웅대한 자태의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다. 최근엔 무등산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해 화제다.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무등산 주상절리는 하늘로 치솟은 특이한 모양.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한국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한 곳은 단 3곳 뿐. 제주와 청송, 그리고 무등산이다. 무등산에는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주상절리 등 20곳의 지질명소와 42곳의 역사문화명소가 있다. 무등산 등산은 증심사와 원효사에서 출발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부담된다면 지산유원지 내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된다. 무등산파크호텔 오른쪽엔 리프트 탑승장이 있다. 2인용 리프트를 타면 747m의 향로봉 정상까지 한 번에 오를 수 있다. 리프트를 타는 내내 소나무, 단풍나무 등 수십 종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준다. 리프트에서 내려 100m 정도 산길을 걸



으면 모노레일 간이역인 '빛고을역'이 나온다. 16인승 모노레일은 시속 10m 속도로 느릿느릿 운행해 맛있는 것 같지만 최고 높이 50m 구간을 지날 땐 스릴 만점이다.



고봉의 가르침을 찾아 월봉서원

광주 출신의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는 곳. 고봉이 죽은 지 7년 채 되던 1578년, 호남 유생들이 낙암 아래 사당을 지었다. 고봉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다. 서른두 살의 신참내기 선비 고봉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과 26살이라는 나이 차를 넘어 13년간 12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한 것. 그 중 8년간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한국 성리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한다. 월봉서원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비의 일상을 체험하는 '선비의 하루',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서원관광축제 '월봉유랑', 공연과 토크쇼를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 '살롱 드 월봉', 고봉과 퇴계의 만남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월봉 로맨스', 놀이와 예술로 철학을 배우는 '꼬마철학자상상학교', 철학자의 사상을 음식에 담은 '철학자의 부엌' 등이 그것. 그중 '선비의 하루'를 체험했다. 옥빛 유생복을 입고 나니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체험 시간은 30분에서 한 시간. 유건을 쓰고 가슴에 숯피를 매고 행진으로 바지 끝단을 정리하고 나니 진정한 선비가 된 기분이다. 유생복을 입고 상소문을 쓰고, 송덕사에서 배례를 하고 난 후 '철학자의 길'을 조용히 걸어보자.



빛이 스며든 예술 공간 우제길미술관

2001년 4월 개관한 우제길미술관에서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우제길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014년 승효상 건축가의 설계로 증축, 전시실과 작업실, 카페, 교육실, 야외 정원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공간 구성이 돋보이는 모더니즘 건축물은 빛을 소재로 작업하는 우제길 작가의 추상 작품과 닮아 있다. 곳곳에 불규칙적인 창문이나 있는데, 빛이 자유자재로 전시장을 비추 또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우제길미술관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8주 코스의 '2018꿈다락토요문화학교'를 무료로 진행한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40-6 전화 +82-62-224-6601 운영시간 10:00~18:00 홈페이지 www.woojil.co.kr

1913송정역시장

사투리를 디자인하다 역서사소

전라도 말로 '여기서 사세요'라는 뜻의 '역서사소'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바비사인의 세컨드 문구 브랜드다. 조선대 시각디자인학과 선후배 사이인 김효미·김진아 씨는 3년 전 브랜드를 론칭하고, 2016년 4월 19일 송정역시장에 팬시 매장을 낸 것. 정겨운 지역 사투리를 응용한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에 피식 웃음이 난다. 편지지와 엽서, 노트, 달력, 볼펜, 에코백, 휴대폰 케이스, 방향제 등 다양한 팬시 용품을 갖추고 있다. 역서사소는 전라도는 물론 경상도, 제주도 등 전국 사투리를 연구하고 디자인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사투리 달력은 없어서 못 팔 정도.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8번길 7-4 1층 전화 +82-70-4111-2015, 062-942-1012 운영시간 11:00~20:00, 월요일 휴무 홈페이지 www.buyhere2015.kr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옛날 간식 양갱의 변신 갱소년

'다시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는 뜻의 갱소년(更少年). 광경옥, 선지혜 부부는 구슬처럼 예쁜 양갱을 선보인다. 어른들이 먹던, 은박지에 싸인 촌스러운 양갱을 알록달록하고 세련되게 브랜드한 것. 40년 넘게 양갱을 만들던 장인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전통의 맛을 살렸고, 기존 양갱과 차별화된 부드럽고 말캉한 식감에 상큼한 생과일을 더했다. 양갱 롤케이크는 딸기, 파인애플, 블루베리, 호두, 4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고, 알양갱은 딸기, 블루베리, 파인애플, 호두, 우유, 녹차, 망고, 키위, 8가지 중에 고를 수 있다. 갱소년에선 유휴제와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100% 밀양의 한천을 고집한다.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8번길 7-4 전화 +82-62-942-1913 운영시간 10:00~22:00 가격 양갱모듬팩(8개) 4800원, 양갱조각롤케이크 3300원, 알양갱1상자(24개) 1만 6000원



오직 식빵 또아식빵

갓 구운 따뜻한 식빵을 판매하는 식빵 전문점. 첨가물이 가득 든 화려한 빵에 가려 조연처럼 취급받던 식빵이 당당히 주인공 대접을 받고 있다. 우유 식빵과 옥수수식빵만 먹고 자란 단조로운 입맛의 빵순이들에게 또아식빵은 혁명 그 자체. 식빵 종류가 워낙 다양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연유, 갈릭크랜베리, 먹물치즈, 홍국쌀, 치즈, 블루베리, 옥수수, 캐러멜코카, 호박고구마, 딸기, 밤, 초콜릿, 호떡, 마늘 등 14가지 재료를 토핑해 만든 건강한 식빵을 맛볼 수 있다. 천연발효종과 우리 밀로 만든 수제 식빵은 쫄쫄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 잼이나 버터를 발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고소하다. 식빵을 종류별로 사는 이들도 부지기수. 그도 그럴 것이 또아식빵의 모든 빵이 단돈 2900원. 또아식빵의 본점이라 전국 각지에서 순례 온 빵덕후들로 늘 북적이다. 곁을 따라 부드럽게 뜯어 먹는 최고의 식빵을 맛보고 싶다면 빵 나오는 시간에 맞춰 가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8번길 11 전화 +82-62-955-6945 운영시간 09:30~21:00

예술로 재탄생한 공간

광주의 새로운 아이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년 9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 이하 ACC).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자리에 터를 잡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곳은 아시아와 문화 교류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 교육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특이한 건 건물의 90%가 지하에 숨어 있는 것. 무등산과 주변 풍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한 유규승 건축가의 배려가 담겨 있다. '빛의 숲'이라는 콘셉트 아래 옛 전남도청사 부지 25m를 파 여러 시설을 지하에 품은 것.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청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열린마당, 하늘마당, 옥상공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록 잔디가 깔린 하늘마당은 광주 시민들의 소풍 장소로 인기. 언덕 끝에는 '잠깐 여기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적힌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작은 문구가 고달픈 직장인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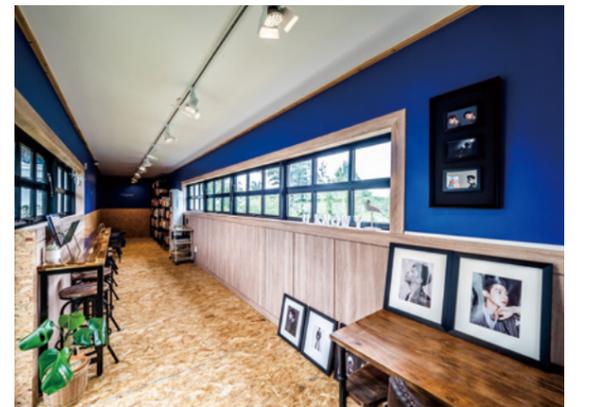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화 +82-1899-5566 운영시간 내부시설 10:00~18:00 외부시설 08:00~22:00 홈페이지 www.acc.go.kr



낮은 공장의 변신 소촌아트팩토리

소촌농공단지는 30여 년 전 공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세월이 흐르면서 유휴 시설이 늘어나 곳곳에 낡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 되었다. 노후한 3층짜리 소촌공단 관리사무소 건물과 컨테이너 27개를 연결해 2015년 '소촌아트팩토리'를 개관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시 공간인 큐브미술관을 비롯해 작가의 레지던스, 아르코공연 연습센터, 비영리카페와 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롭게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다.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옮겨왔고, 철이 벗겨진 벽면과 컨테이너 외관에 컬러풀한 그래피티를 그려 넣었다. 소촌아트팩토리에선 레지던스 입주작가 프로그램도 진행, 공모를 통해 김계진, 박정일, 박환숙, 이두환 4명의 작가를 선발했다. 1층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카페 '아트코원'이 있다. 이곳에서 파는 커피는 한 잔에 3000원, 음료 4잔에 1만 원으로 저렴한 편. 수익금은 예술 창작 지원을 위해 전액 기부된다.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14-9 전화 +82-62-960-3686 운영시간 09:00~18:00, 월요일 휴관 도서관 10:00~18:00, 브레이크 타임 11:30~12:30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http://soartfactory.blog.me



동방신기 팬심이 이뤄낸 도서관 허그 Hug

2018년 6월 30일 유노윤호의 아시아 팬클럽이 힘을 모아 그의 고향인 광주 광산구에 작은 도서관을 세웠다. 소촌아트팩토리 내에 마련된 유노윤호 도서관 '허그'는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한 형태. 한·중·일·대만 4개국 팬들이 기증한 책 1500여 권이 책꽂이 가득 꽂혀 있다. 곳곳에 유노윤호 사진이 걸려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패브릭 의자가 놓여 있다. 유노윤호 팬들은 2012년부터 중국 오지마을, 아프리카 가나 등에 유노윤호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설립, 열렬한 팬심이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유노윤호가 군복무한 육군 26사단에도 도서관을 조성할 정도. 4개국 팬클럽 회원들의 기부로 조성된 전국 최초의 도서관이라 의미가 있다.

푸근한 현지 인심 세계의 전통시장 6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은 언제나 여행자를 설레게 한다. 현지의 생생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방콕, 오사카, 다낭, 가오슝, 부산, 쿠알라룸푸르의 대표 전통시장을 소개한다.

에디터 (AB-ROAD) 편집부



태국 행복한 수상시장 **담년사두의 수상시장** 방콕

방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담년사두의 수상시장. 방콕을 비롯해 태국의 생활 모습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수상시장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모습은 여느 시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강 위에 떠 있는 롱 테일 보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클롱 양쪽으로 잡화상과 민가가 이어져 있고, 과일, 식료품, 일용잡화를 가득 실은 거룻배들이 뺨뺨이 모여든다. 상인들은 배 위 혹은 물에서 물건을 팔고, 사람들 역시 배에서 물건을 산다. 오징어와 해산물 구이를 비롯해 과일, 쌀국수, 각종 튀김, 고기 등 없는 게 없다. 선착장 옆길을 따라 마시지 슝, 기념품 가게, 음식점 등도 있다. 관광객 위주의 다른 수상시장과 달리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다.



일본 일본 최장의 아케이드 상점가 **덴진바시** 오사카

총 길이 2.6km,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 대형 할인마트에 전통 시장이 밀리는 건 오사카도 마찬가지지만 덴진바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손님과 여행자를 불러 모으고 있다. 오사카 덴만구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가게들이 모여 시장이 된 것. 긴 아케이드를 다 걷고 나면 오사카 덴만구 사무소에서 완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식료품, 잡화점, 의약품점, 찻집 등 600여 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땅을 매립해 사라졌지만, 과거 강이었던 곳이라고 한다. 에도 시대에는 강을 통해 일본 전국의 물건이 모였고, 이는 오사카의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식탁의 다양화에도 영향을 줬다. 이외에도 프리마켓을 하거나 전시를 여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다.





베트남
꽃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끈 시장 다방

주택가에 위치해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베트남 현지인의 삶을 가깝게 겪어볼 수 있는 이곳은 꽃 시장에서 시작했다. 건물 안 1층에는 잡화점과 식당이, 2층에는 아오자이 원단을 판매하는 상점이 모여 있다. 건물 주위에는 꽃과 과일을 파는 좌판이 널려 있다. 현재는 한 시장보다 규모가 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편. 관광객이 많지 않아 간단한 영어도 통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그래도 현지인들의 복잡박박하는 삶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다면 아침 일찍 끈 시장을 방문해보자. 해맑게 웃어주는 상인들이 정겹다. 시장을 구경하다 목이 마르면 즉석에서 얼음과 함께 갈아주는 생과일 스무디 '신뜨'를 마셔볼 것. 과일을 직접 고를 수 있고 2만 동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중화 타이베이
중화 타이베이 3대 야시장 류허 야시장 가오슝

가오슝에서 가장 큰 야시장. 류허 야시장은 중화 타이베이에서 3대 야시장으로 꼽힐 정도로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하다. 인근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간식을 파는 포장마차들로 유명하다. 어두운 밤, 빌딩숲 사이로 환한 불빛으로 가득한 골목이 눈에 띈다. 길게 뻗은 도로 양옆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국수부터 신선한 해산물 꼬치구이, 망고와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까지.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오슝의 대표 먹자골목이다. 매일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오슝 시민과 여행자로 북적인다. 중화 타이베이 전통 음식 외에도 구운 오리 머리부터 조리용 개구리 등 독특한 이색 음식도 만날 수 있다. 파파야와 우유를 섞어 갈증을 달래줄 파파야우유도 인기다.



대한민국
부산 시민의 삶의 터전 국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부평강통시장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광복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물건을 팔던 곳이다. 수탈의 통로였던 부산항과 가까워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다. 시장내 유일한 적산가옥인 돌고래순두부집이 그 흔적. 국제시장은 1950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비롯해 일본, 미카오 등 외국 물건을 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란민의 옷을 꿰매주던 수선집, 국수를 팔아 한 끼 때우던 좌판 등 아직 옛 모습 그대로다. 시장이 어찌나 크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초행길이라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영화 <국제시장>에 등장한 잡화점 '꽃분이네'도 큰 볼거리. 영화의 인기로 힘입어 포토 포인트까지 생겼을 정도. 매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릴 때면 시장은 더욱 북적인다.



말레이시아
잠들지 않는 포장마차 거리 잘란 알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명동'이라 불리는 '부킷빈탕'에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별천지가 펼쳐진다. 빨간 등불 아래 작은 노천 식당과 육포 가게, 꼬치 파는 노점상이 뽐뽐이 모여 있다. 해가 지면 노천 테이블이 도로까지 장악해 북적이는 먹자골목으로 변신한다. 닭고기와 양고기를 망풍소스에 찍어 먹는 꼬치구이, 사태가 특히 인기다. 즉석에서 육포를 구워 파는 음식점이 많은데 직접 맛을 보고 구입할 수 있다. 무슬림을 위해 할랄 육포도 판매한다. 지독한 냄새의 두리안을 비롯해 열대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망고스틴, 양귀비가 먹었다는 리치, 빨간 털로 뒤덮인 람부탄, 용의 여의주 모습을 한 용과 등 온갖 열대 과일이 지천이다. 과일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손씻을 물까지 준비돼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TPO의 새로운 발걸음



TPO 사무총장 김수일

TP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도시 간 교류를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국제기구.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86개 도시 회원과 9개국 45개 도시 민간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김수일 사무총장은 '회원 도시들이 얼마나 TPO 사무국에 만족하는지'에 귀 기울여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TPO 마케팅 센터와 TPO 컨설팅 센터 운영, 원조 자금 링크 사업 등을 계획해 회원 도시들의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디터 이정화 자료협조 TPO



먼저 TPO 사무총장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TPO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PO는 2000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정상 회담(Asian-Pacific City Summit)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2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02년 공식 출범했습니다.

TPO가 유사 국제기구와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도시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도시 간에 관광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죠. 관련 정보와 정책을 공유해 함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갑니다.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라 문화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고 상호 이해도가 높아 결속력이 강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중요시되고 있어 TPO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행 트렌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여행 트렌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띠니다. 개발도상국의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특정 대도시나 유명한 유적지 등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선진국 시민들은 테마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유적 시찰이나 오지 탐험, 골프, 트레킹, 서핑, 다이빙, 허니문 등 특정 테마를 갖고 여행을 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광산업은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영역일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노동 인력을 급속히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근로시



간을 줄이는 대신 여행에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TPO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TPO의 발전은 '회원 도시들이 얼마나 TPO 사무국의 서비스에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회원 도시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TPO 웹사이트 운영, TPO 관광잡지(Tourism Scope) 발간, 관광 분야 인재 육성 사업, 회원 도시 관광 정보 교환 사업 외에 추가로 TPO 마케팅 센터 운영, TPO 컨설팅 센터 운영, 월간 관광 시장 동향 분석 리포트 발간, 원조 자금 링크 사업(한·중·일 등 경제 강국들의 개도국 원조 자금을 회원 도시들의 관광 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연결해주는 사업), TPO 국제도시관광전 개최 등을 통해 회원 도시들의 관광 산업 발전 및 육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TPO가 2019년에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사무총장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원 도시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내외 회원 도시들과 개별 혹은 집단 미팅을 통해 회원 도시들이 TPO 사무국에 기대하는 바를 파악 해야죠. 그걸 바탕으로 사무국의 역할과 사업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놓았는데,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선 주도면밀한 준비 과정도 필요합니다. 2019년 9월에 TPO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도시 수나 행사 내용 면에서 명실공히 최고 수준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원 도시 시장 서밋, 회원 도시 관광 홍보 로드 쇼, 회원 도시 예술단 공연, BtoB 세일즈 미팅,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동시에 실시해 비즈니스와 축제가 융합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김수일 TPO 사무총장 취임

김수일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사무총장이 12월 3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수일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1일 중국 두장옌시에서 개최된 제32회 TPO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의 참여정부 국정자문위원회 동북아 위원장,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총영사, 주동티모르 한국대사, 대신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수일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TPO가 규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TPO 회원 확대, TPO 관광엑스포 개최, TPO지역회의 활성화 등을 향후 TPO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TPO 컨설팅 팀을 구성해 회원도시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연성 전 TPO 사무총장은 11월 30일 퇴임식을 대신해 가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아쉽지만, 그동안 TPO가 국제기구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수일 TPO 사무총장, 중국 상해 및 광저우 방문

TPO 회장도시인 부산시 오거돈 시장과 김수일 TPO 사무총장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시와 광저우시를 차례로 방문해 양 도시의 시장이 2019년 9월에 부산에서 열리게 될 제 9회 TPO 총회에 참석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12월 7일 오거돈 시장 일행은 광저우에서 열린 광저우 글로벌 시장포럼에 참석해 Ir. Tri Rismahaini, M.T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시장, Dato' Nor Hisham Bin Ahmad Dahlan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양 도시가 TPO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들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또한 같은 날 오 시장 일행은 4, 5, 6대 회장도시를 역임한 광저우 시의 온국휘 시장과 면담을 갖고 광저우시가 TPO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한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로 유명한 네팔 듀리켈 시의 Ashok Kumar Byanju Shrestha 시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수일 사무총장은 TPO를 자세히 소개하고 듀리켈을 TPO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초청했다. 이에 Ashok Kumar Byanju Shrestha 시장은 TPO 회원가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오 시장과 김 사무총장을 2019년 2월 네팔 듀리켈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초청했다.





간몬 해협 순회 야경 버스
시모노세키, 일본 | 10월 6일~2019년 3월 16일
장소 간몬 해협 연안 지역

시모노세키와 기타큐슈에서 숙박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버스 투어. 간몬교와 모지코레트로, 시모노세키의 아루카항 등을 돌며 야경을 감상한다. 10월 6일부터 2019년 3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행하며 예약은 필수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kanmon-yakeibus.jp) 참고.



일루미네이션2018 모지코레트로 낭만등채(浪漫灯彩)
기타큐슈, 일본 | 11월 17일~2019년 3월 17일
장소 모지코레트로 지구

기타큐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모지코레트로(門司港レトロ) 지구에서 열리는 일루미네이션. 약 30만 구의 전구가 나무에 장식되고 메이지 초기부터 다이쇼 시대에 걸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에 밤마다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페스타 칭게이(Pesta Chingay) 사자춤·용춤 퍼레이드
페낭, 말레이시아 | 12월 1일~12월 31일
장소 파당 브라운(Padang Brown)

사자춤·용춤 퍼레이드와 함께 각종 공연과 미인 선발 대회 등을 열어 중국 신들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 퍼레이드는 파당 브라운(Padang Brown)에서 출발해 잘란 다톡 케라맛(Jalan Datuk Keramat), 잘란 페낭(Jalan Penang), 잘란 버마(Jalan Burma) 등을 지나 에스플라네이드 극장에 이르러 '기동 위 사자춤'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부산, 한국 | 12월 1일~2019년 1월 6일
장소 광복로 및 광복중앙로 일원

부산의 대표 겨울 축제. 광복로 입구에서 시티스퀘어, 근대역사관과 창선상가 입구까지 총 3개 구간에 걸쳐 다양한 트리와 조명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거리 곳곳엔 '사랑의 탄생', '실루엣 허그존' 등의 포토존이 자리한다. 캐럴 경연대회, 데일리 점등 퍼포먼스, 소망 트리 적기 등의 행사도 열린다.



미나토오도리 공원 일루미네이션
가고시마, 일본 | 12월 1일~2019년 1월 31일
장소 미나토오도리 공원

가고시마 시청 앞에 자리한 미나토오도리 공원은 가고시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 겨울이면 공원 내의 느티나무 56그루에 약 12만 구의 전구가 장식되어 아름답게 빛나는 가로수를 볼 수 있다.



아시아 연결 회의(Conference on InterAsian Connections)
하노이, 베트남 | 12월 4일~12월 7일
장소 베트남 사회과학 아카데미

사회과학연구위원회(SSRC)가 주관하는 행사로, 이 회의에서는 영토 주권 및 역사적 정체성, 지역 간 종교 네트워크 및 아시아 내 환경 인문학 등의 영역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9 싼야 국제 뮤직 페스티벌(2019 ISY MUSIC FESTIVAL)
싼야, 중국 | 12월 30일~12월 31일
장소 중국 싼야 하이탕완

싼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은 '사랑'을 주제로 싼야 국제 테마 뮤직 파크에서 매년 두 차례 열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DJ와 초대형 스타들이 참여해 다양한 테마로 무대를 장식한다.



제3회 울산대공원 빛 축제
울산, 한국 | 12월 8일~2019년 1월 27일
장소 울산대공원 장미원(남문)

울산대공원 남문 지역의 장미원 일대를 조명 콘텐츠로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의 하이 라이트는 장미원 입구 분수대 광장에 세워진 높이 11m의 초대형 별 구조물로, 멀티미디어 라이팅 쇼를 선보인다.



덴몬칸 밀리오네이션2019
가고시마, 일본 | 12월 22일~2019년 1월 31일
장소 덴몬칸 공원 등

가고시마 최대 변화가인 덴몬칸(天文館)을 약 100만 개의 LED 전구로 물들이는 대규모 일루미네이션이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열린다.

IREITIC 2019

공학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혁신연구 국제회의(IREITIC 2019)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 2019년 1월 4일~1월 6일
장소 말레이시아 사바(Sabah)

학자와 산업계가 최신 엔지니어링과 정보 기술에 대한 최신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번 회의에선 공학 및 정보 기술과 관련된 첨단 기술 개발에 더 중점을 둘 예정이다.



토오카 에비스 정월 축제(十日恵比須正月大祭)
후쿠오카, 일본 | 2019년 1월 8일~1월 11일
장소 토오카 에비스 신사

후쿠오카시 히카타구 히가시 공원에 위치한 토오카 에비스 신사에서 열리는 정월 축제. '에비스'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칠복신(七福神) 중 하나로 어부와 상인의 수호자다. 매년 장사와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참배객들이 많이 찾는다. 신사까지 이어지는 거리엔 400여 개의 노점이 늘어서 있어 밤늦게까지 시끌벅적하다.



제35회 중국(상하이) 국제 웨딩 엑스포(The 35th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wedding expo)
상하이, 중국 | 2019년 1월 9일~1월 11일
장소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엑스포에서는 웨딩드레스를 비롯해 메이크업, 웨딩 앨범, 촬영 배경 도구, 아동 촬영 용품, 진열 디자인과 가구, 관리 교육과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다.



제14회 광저우 설 용품 박람회(14th Guangzhou special purchases for the spring festival fairs)
광저우, 중국 | 2019년 1월 18일~1월 30일
장소 광저우 바오리 세계무역전람관

이번 박람회는 '내수 확대, 소비 촉진, 민생 혜택'을 목표로 더 많은 기업에 제품 홍보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다양한 쇼핑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12회 중국(신장) 신춘 설 용품 박람회(The 12th China goodies for lunar New Year fair in Xinjiang)
신장, 중국 | 2019년 1월 18일~2월 2일
장소 신장 국제 컨벤션 센터

신장 지역에서 최대 규모와 다양한 품목을 자랑하는 영향력 있는 행사. 베이징, 상하이, 광둥, 저장, 산둥, 네이멍구, 홍콩, 중화 타이베이 등 32개 성, 시, 자치구 및 카자흐스탄, 한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호주 등 21개 국가와 지역에서 536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컴퓨터 연구개발 국제회의(ICCRD)
달랏, 베트남 | 2019년 1월 25일~1월 28일
장소 베트남 달랏

베트남 과학대학과 호치민시 산업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컴퓨터 연구 개발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와 전문가가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진단하고 미래 연구의 핵심 분야를 설계해 본다.



절분제(節分祭)

후쿠오카, 일본 | 2019년 2월 2일~2월 3일

장소 쿠시다(櫛田) 신사

일본에서는 기후가 바뀌는 시기를 '절분(節分)'이라 한다. 쿠시다 신사에서는 매년 절분에 맞춰 액운을 쫓기 위해 콩을 뿌리며 건강과 안전, 행운을 기원하는 절분제를 개최한다. 신사 입구에 걸려 있는 높이 약 5m의 '오타후쿠 가면(お多福面)'을 통과하면 장사가 번창하고 집안에 화목과 평화가 깃든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공공안전(PS Indo) 회의 및 박람회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2019년 2월 27일~3월 1일

장소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인도네시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정부, 지역 사회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의 안전 보장과 인프라 보호, 응급 서비스 개선 및 혁신적인 공공 안전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시모노세키 복어의 날 축제

시모노세키, 일본 | 2019년 2월 11일

장소 하에도마리(南風泊) 시장

일본에서 복어 취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한 하에도마리 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 복어 냄비 요리를 맛볼 수 있고, 복어 잡기 이벤트가 열리며 복어 관련 상품도 판매한다.



2019 가오슝 등불축제(2019 Kaohsiung Lantern Festival)

카오슝, 중화 타이베이 | 2019년 2월

장소 가오슝시 아이허 일대

'중화 타이베이 등불 축제', '타이베이 등불축제'와 함께 3대 등불 축제로 꼽힌다. 주변 2~3km 이내에 늘어선 꽃등과 다양한색의 노점미 항구 도시 가오슝의 독특한 풍경과 잘 어울리며 화려한 불꽃놀이도 펼쳐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2019 하이저우 원소절 등불축제(2019 Haizhou Lantern Festival)

하이저우, 중국 | 2019년 2월 19일

장소 하이저우

원소절 등불축제는 오래전 사람들이 논밭에서 햇불을 들고 벌레와 맹수를 쫓으며 병충해 방지와 풍년을 기원한 '햇불축제'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도 중국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정월 15일에 갈대 줄기나 나뭇가지를 사용해 햇불을 만들어 여럿이 함께 무리를 이뤄 햇불을 높이 들고 밭이나 마당에서 춤을 춘다. 하이저우 원소절 등불축제에선 하이저우의 다양한 전통 등을 볼 수 있고 민속 공연과 꽃 전시를 즐길 수 있다.



2018 타이중 국제 꽃 박람회

타이중, 중화 타이베이 | 11월 3일~2019년 4월

24일

장소 타이중시 와이푸, 허우리, 평위안 일대

이번 박람회의 전시 테마는 'GNP-Rediscover Green Nature and People'로 경제 성장 지표인 GNP(Gross National Product)를 GNP-Green(녹색), Nature(자연), People(인문)로 재정의한다. 생산, 생태, 생활이 조화를 이뤄 인류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자연에 귀를 기울여 꽃이 피는 소리를 듣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식품 및 환경과학 국제회의 (ICFES 2019)

호치민, 베트남 | 2019년 2월 25일~2월 28일

장소 호치민시 산업대학

식품 및 환경과학 분야에서 학계 및 산업계를 이끄는 창의적 인재들이 공동의 주제로 모이는 자리다. 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식품 및 환경 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 더불어 베트남의 연구원, 개발자, 엔지니어, 학생, 기업 실무자들과 외국 간 과학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목표다.

TPO Members

86 city members, 45 industry members

CITY MEMBERS

- CHINA**
Chengdu, Qingyuan, Dalian, Foshan, Guangzhou, Hangzhou, Qingdao, Sanya, Shanghai, Shaoguan, Shenyang, Suzhou, Tianjin, Urumqi, Weihai, Yantai, Zhangjiajie, Zhaoqing, Zhengzhou, Liupanshui, Lianyungang, Dujiangyan
- CHINESE TAIPEI**
Kaohsiung, Taichung, Tainan
- KOREA**
Andong, Boryeong, Busan, Busan Haeundae-gu, Busan Jung-gu, Buyeo-gun, Changwon, Chuncheon, Daegu, Daegu Jung-gu, Daejeon, Donghae, Gangneung, Geoje, Gimhae, Goyang, Gunsan, Gwangju, Gyeongju, Hadong-gun, Iksan, Incheon, Incheon Gangwha-gun, Jeonju, Namhae-gun, Pohang, Sokcho, Tongyeong, Ulsan, Ulsan Dong-gu, Ulsan Nam-gu, Yeongju, Jeollabuk-do, Ulju-gun
- RUSSIA**
Vladivostok, Irkutsk
- JAPAN**
Fukuoka, Kagoshima, Kitakyushu, Kumamoto, Miyazaki, Osaka, Shimonoseki, Takeo
- THAILAND**
Bangkok
- VIETNAM**
Danang, Hai Phong, Hanoi, Ho Chi Minh
- PHILIPPINES**
Manila
- MALAYSIA**
Ipoh, Kota Bha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Melaka, Penang, Taiping
- INDONESIA**
Jakarta, Surabaya, Yogyakarta, Bitung

INDUSTRY MEMBERS

- CHINA**
Guangzhou Garden Hotel, Guangzhou Star Cruises Co., Ltd.,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 Shandong Channe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China Travel International (Xinjiang) Ltd., China Comfort X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o., Ltd., Dalian Gulian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CITS Guangdong, China Travel International Sanya Co., Ltd., Hainan Gaoli Holiday Travel Service Co., Ltd.
- JAPAN**
Kagoshim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Fukuoka Convention & Visitors Bureau, JTB Corp. Fukuoka Office
- KOREA**
BEXCO, Busan Tourism Association, Arum Travel Service Co., Ltd., Cheongsong Travel Service Co., Ltd., Road ABC Media Co., Ltd., TourJapan Co., Ltd., Intravel Ltd., Haeundae Centum Hotel, Daegu Tourism Association, Lee Convention, Busan Tourism High School,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Solar Travel Agency, BS FunTour, Benikea Jeonju Hansung Tourist Hotel, Sky Tour, JB Tour, Panworld Dream, Tour Fun Co., Ltd., Wolseong E&C, Tongyeong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Stanford Hotel & Resort, Dongback Tour, Dongwon Royal Country Club & Resort, Ulsan College
- MALAYSIA**
Taiping Tourist Association
- MONGOLIA**
Ancient Nomads Tour Agency
- RUSSIA**
Gavan Tour-Center Co. Ltd
- U.S.A**
MCM Group Holdings Ltd.
- VIETNAM**
Haiphong Vanhoa One Member Limited Corporation, Haiphong Vocational College of Tourism
- INDIA**
Abroaders Consultancy India Pvt. Ltd.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PO Secretariat, 8th Floor of Kwang-Eun Building, No.480 Suyeong-ro, Suyeong-gu, Busan 48314,

TEL. +82-51-502-2984~7 FAX. +82-51-502-1968

E-mail. secretariat @ aptpo.org

Web Site. <http://www.aptpo.org>